2019 년 7 월 선교편지—베네수엘라와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베네수엘라 꾸마나교계에서 온 소식



기존 개척한 8 개 침례교회와 ASIBES 침례지방회가 함께 일히면서 카리브복음신학교 출신들이 교회개척과 전도에 앞장서다: 작은제자교회, 쑤끄레주 예수복된교회, 페닌술라 마니꾸아레교회, 풍선한교회, 깜페체선교교회, 하늘천국교회등...

베네수엘라를 예수니께로



제일침교회 에프란목사 예수복돤교회 어린이사역 라디오홍보사역도 신학교풍성한교회



가나안교회 전도팀조타 마니꾸아례제 1 지교회 쑤끄레예수복된교회 깜페체 교회시작함



제일침례어린이함창단 ASIBES 지방회활발 ASIBES 청소년전도단 중앙교회예배광경

카리브복음신학교사역



카리브복음신학교 목회학석사 4 명 12 회 졸업식이 2019 년 7 월 13 일 신학교 교정에서 실시되다. 정경석 학장은 쿠바서 분실한 베네수엘라 여권이 회복안되어 참여하지못하다, 그러나 안토니오 학장대리(우편사진) 호세그레고리오 학사담당부학장, 에프란 행정부학장, 교학처장 에우헤니오 지도아래 잘 치루어지다. 현지 지도자들이 신학교 운영하니 좋다. 특수과정 APALIDER 졸업자 15 명도 함께 졸업하다. 까리아꼬분교 졸업자 35 명 졸업하다. 메릴랜드신학교 (학장 안준식 박사) 졸업장과 영사확인증 APOSTILLO 함께 받았구나!

목사안수식



여섯명 목사 안수식도 거행하니 너무나 좋고 복되도다. 다빗로메로, 루벤로드리게스, 루르데라라, 알레한드라깐냐, 호세그레고리오렌헬, 안토니오아리스띠문뇨. 목회학석사 졸업자에게만 안수함.



2005 년 개교때 부터 시작한 원주민/현지인 선교사 훈련과정 AMICRISTO (ADIESTRAMIENTO PARA MISIONERO DE CRISTIANO)을 베네수엘라 침례총회가 인정하고 초청하여 총회선교부와 함께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콜롬비아 침례교회산하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8 월 18 일—24 일 중에 훈련하도록 조치하였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쿠바를 예수님께로



쿠바에는 1200 여명의 한인후예들이 8 개 도시에 6 산다. 이분들을 앞세워 쿠바를 복음화하자.



한국침례총회가 쿠바를 픔고 쿠바침례총회와 협력하려고 박종철 회장님 일행이 홀긴에 7월 10일 토론토 거쳐 도착하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유진화 선교사도 합류하다.



7월 11일 목요일 쿠바의 제 2도시 싼띠아고데쿠바 쿠바동부침례총회 방문하여 한-쿠바침례총회 협력서류 MOU 체결. 호수에로드리게스 쿠바동부침례총회장과 박 총회장(중).

마르까네 가정교회방문



사탕수수 제련공장에서 일하던 김씨 후손들이 대부분인 마을에 오후 5 시경에 도착하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찬양열기는 대단하다. 주님만 의지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오랜가옥은 페인트도안하고 재래식변소도있지만 우리 일행을 위하여 정성끗마련한 식사

<mark>마나띠 후손들</mark>



오전중 1921.03.25 한인후손 280 여명 도착기념비 방문. 오후예배후 홀긴 숙소로.돌아옴



한인후손들 60 여명이 살다. 공동체집구입중 USD\$5K. 사촌간인 형제가 성경학교공부중 돌아오는 길이 무척 힘들구나. 에어콘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으니. 더위먹고 너무 힘들어.

까마구이형제들



토요일 새벽출발 아침시간에 전기가 나가서 따뜻한 아침식사못함.예배 후 식당에는 많은 후예들이 참여하다. 어쿠 여호와증인도 참석하는구나. 혁명때 사라진 이단들이 나타나다

씨에고데아빌라



가장최근에 알려진 25 명의 김씨 후손들이다. 오후 5 시경에 도착하여 민박집 투숙후 8 시경예배보다. 목장목녀(다닐로/마르가리따)가 사촌간으로 가정교회가 발전하는구나! 새로이사한 집이지만 너무 협소하구나. 좋은장소 새 예배처소가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14K CUC

<mark>까르데나스 후손들</mark>



일요일 새벽 5 시에 씨에고데아빌라 출발 12 시전에 도착하다. 291 명의 후손들이 산다. 가정 예배처소도 크고 최근 침례탕도 마련하여 7 명이 침례받았다. 유명한 김세실리오 가수도 침례받고 새로이 태어났다. 아멘! 목녀 아델라이다와 목장 호세하는 공군증령 출신이지만 은퇴 후 엑때사 국유 전화국 까르데나스 지국장으로 봉사한다. 아델라이다는 최근 세계 디아스포라 모임으로 한국에 다녀와서 더욱 친한파가 되었다. 또 침례교인으로 한인후손 가정교회와 까르데나스 제 2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 쿠바여행 TV 쇼에 가끔 나온다.



박 총장님이 목장/목녀 위하여 특별기도하시다. 예배 후 김세실리아 가수가 흥을 돋구다. 점심식사 초대하였는데 많이 참석하였다. 최근 식재로부족으로 식당이 비어있다. 그러나 호세하 목장의 도움으로 닭튀김 즐기다.

<mark>엘볼로 한인촌</mark>



마나띠 항에 도착하여 사탕수수농장에서 돈을 벌려던 계획은 국제 원당값 하락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에니껭 농장으로 돌아가다. 당시 마딴사스에 에니껭 농장에서 일하며 은덕위 엘볼로 지역에서 한인촌을 이루며 살았다.

물 탱크도 세워 온동네에 물을 공급하였고 한인최초의 한글학교와 예배처소도 마련하였다.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도 보내었다. 고 임천택 회장의 유골은 독립유공자로 2004 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현재 임씨가족후손을위한 정부보조가있으며 두째딸 마르다가 제 3 이민사를 집필중이란다. 첫번 이민사는 임천택 ESNESTO LIM 씨가 기술하였고 두번째 이민사 COREANOS EN CUBA 는 쿠바역사학자 사위 라울루이스 RAUL R. RUIZ 가 부인 마르다 도움으로 기록하였다.

아바나 소재 쿠바서부총회방문



월요일 15 일 오전 10 시 30 분에 갈보리교회에 위치한 서부침례총회에 들리다. 예상외로 총회장 다리엘낀따나 DARIEL QUINTANA 가 우리를 마지한다. 미국 여행으로 총무와 만날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출국이 금지되어 공항에서 돌아왔구나. 현 쿠바정부가 헌법 개정을 예고하며 의견수렴 중인데 개신교단체들이 더 많은 종교자유를 요청하여 정부의 미움을 샀구나. 앞으로 당분간 종교비자도 막히는가보다. ㅎㅎ MOU 협정하다.



쿠바혁명광장에서 기억 할 곳은 쿠바의 아버지 호세마르띠 혁명탑 주위 정부청사에 그려진 체게바라와 쿠바 혁명 이론가다. 카스트로 초상화와 혁명구호는 몇년 전부터 살아지다. 개방의 징조?

아바나 침례신학대학방문



아바나 침례신학대학은 1906 년에 남침례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현재 정규학생 50 며명과 교회사역자훈련과정 500 여명이 계절학기에 수학하고있다.학장 발바로모레노는 서남침신대 박사과정 마치는 중이다.



아바나 가정교회 실상



아바나에는 3 개의 가정교회가 존재하였으나 두 목장들의 사망과 한 목장의 미국망명으로 살아지다. 현재 록사나/루이스가 거주하는 동부아바나 알라마르 ALAMAR 지역에 세번째 예배보며 개척중이다.박종철 총장님 방문으로 더욱 활기를 찾는다. 록사나와 통화하며 교제하고 가정교회 예배날자를 정하는것이 쉽지않다. 지난번 준 전화기가 이메일이 잘 되지않아 이번에 새 전화기 사주다. 곧 주택을 사서 다른지역으로 옮길지...

한-쿠바 우정회관



2014 년 한-쿠바우정회관 CLUB MARTIANO AMISTAD CUBA-COREA 설립 후, 한-쿠바 민간교류역활을 담당한다. 2016 년 윤병세장관 2018 년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다녀가다.

쿠바 헤밍웨이 판배전략



아바나에서 유명한 헤밍웨이 살던 집, 작품구상하던 AMBOS MUNDO 호텔, 그리고 술마시던 카페 FLORIDITA 에는 많은 관광객이 들린다. 암보스문도 호텔 커피값은 보통커피집의 두배다. 그러나 옥상에서의 절경을 맛 볼 수 있다. 카페에는 무희들도 등장한다.

<mark>신학생 아바나 가정교회</mark>



미주침례회 해외선교부에서 25 명의 아바나 침신대 학생에게 장학금 주다. 현학생 호세엔리께판다 가정교회방문 섬기다.

고 임은조회장 JERONIMO LIM 미망인 크리스티나 방문



임은조회장은 1997년 7월 만나 한인후예들 찾는데 협력하였으며 쿠바의 한인들 COREANOS EN CUBA 이민사책 발간, 마나띠 입항기념비, 엘볼로 한인촌 기념비세우며 현 가정교회들의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고 고 임천택 부친 (국립묘지안장) 유업을

달성하다. 2002 년 1월 30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씨아틀연합장로교회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바가정교회 복음전파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고 헤로니모는 쿠바농립부식량국장으로 전세계에서 구바로 식량조달 책임자로 농림부차관급으로 한인후예중 가장높은 공직을 맡았다. 부인 크리스티나는 판사로서 봉사하였고 금년 9월에 만 91세다. 손주 넬손 4대는 아바나 코트라에서 봉사중이다(사진 중 우측).

Petición de Oración 기도제목:

- 1. Venezuela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사회 정상화되고 박사과정 순조롭도록. Situación sea cambiada.
- 2. Cuba 쿠바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시도록. Acción del Espíritu Santo sobre Obra Cubana
- 3. Panama 파나마 형제들 쿠바선교 동참가능하도록. Participación de los Panameños en Obra Cubana.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kyungsukchung@yahoo.com
 +58 414-773-1433 정경석 Ven-Cuba; +58 412-305-0190; WhatsApp Kakao Talk 가능
- Panamá 파나마: 중남미 선교둥지 마련 중 kyungsukchung@gmail.com
- Cuba 쿠바: kchung@nauta.cu Tel +53 5-579-3263
- EEUU 미국: 555 10th St. #201, Oakland, CA 94607 +1 415-712-6023 카톡 웟앱 WhatsApp 통화

<mark>알림</mark>: 중남미 여러나라를 순회하므로 메일 후 카톡이나 웟쯔앱 What'sApp 으로 연락주세요. 2019.07.24. 오크랜드에서 정경석 선교사 드림

후기: 쿠바한인후예(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전 쿠바순회선교는 금년으로 마감하련다. 차량 민박 일정조정과 참가자들의 장거리 자동차여행에 익숙하지않고 경비조달도 힘들며 체력유지도 문제로다. 내년부터는 한 도시나 한 지역에서 단기선교팀 참가자들을 섬기련다. 경비도 절반이하 참가자들도 가정교회 한 두곳을 섬김으로 더욱 좋은 교제로 섬길수있도록.